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지켜야”

“공공의대 유치, 도민 염원”

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위, 국회 찾아 당위성 강조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 직후 성명 내고 “약속 어기면 끝까지 책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총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우리는 총파업을 종료하고 현장으로 복귀하지만, 안전운임제 지속과 확대를 위해 흔들림 없이 갈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총파업 철회 직후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우리의 동료가 고봉받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체 조합원 2만6144명 중 3574명(13.6%)이 참여했으며, 이 중 2211명(61.8%)가 총파업 종료에 찬성했다고 화물연대는 밝혔다. 반대는 1343명(37.5%), 무효는 21명(0.58%)이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15일 만에 파업을 종료하게 됐다.

화물연대는 “정부여당은 총파업 내내 강경 탄압과 폭력적인 탄압만을 몰아쳤다”면서 “단 한 차례도 시행된 적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하며 복귀하지 않으면 화물중사 자격마저 취소하겠다고 협박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여당은 안전

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으로 약속을 지켰다며 큰소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으니 안전운임제도 연장을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가 이날 정부여당의 제안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받아들일지 않고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지만, 정부여당은 3년 연장안은 파업 전 제안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당정 협의까지 하며 발표한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가벼운 것이냐”며 “3년 연장 약속이 총파업의 명분을 쥐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 지속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중잇장 뒤집듯 약속을 어기고 거짓말만 반복한다면 화물연대는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전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린)와 남원시의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를 방문해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 공청회에 참가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설득하고 공공의대 유치 촉구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국회 방문은 5년 이상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됨에 따라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 자 기획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찾아 유치 호소 활동을 추진했다.

방문을 주도한 이정린 위원장은 “남원 공공의대는 물론 유사한 다른 법안

들까지 함께 다루어져 본질이 흐려질 수 있지만,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대 강화와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남원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공공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현숙 부위원장과 양혜석 의원은 “공공의대 유치는 우리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몇 번이고 국회를 찾아 소관 위원회 위원은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04회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경수 기자



●지난 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에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임한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쉼 증정식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같은 날 전북도의회 의정실에서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이 열렸다.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승인 규탄”

고창군의회, 성명서 발표… 원안위, “안전성 확인” 재가동 허용

고창군의회(의장 임정호)는 지난 9일, 고창군민 동의 없는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빛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 계획에 방정미 중 원자로 격납건물의 내부 철관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다수의 공극(구멍)과 부식 현상이 발견돼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 받고, 다음날인 9일 임계를 허용하며 공공문제와 장기휴지로 인한 안전성이 모두 확인되었다고 결론짓고 재가동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핵발전소와 아주 밀접한 위치에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

는 고창군민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원안위와 한빛원자력본부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고창군의회 한빛원전조사특별위원회 임준훈 위원장은 “원안위와 한빛원자력본부는 초기 부실시공으로 인한 문제 발생과 위험을 안고 있는 한빛4호기에 대해 제도내외 정기검사에 통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재가동 절차를 추진하고 임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부실시공으로 발생한 각종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원인규명과 지역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하고, 설명할 의무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창=김경식 기자

결핵없는 세상 위한 크리스마스 쉼 모금 동참

전북도가 결핵퇴치 사업 및 예방홍보 재원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도는 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왼쪽)와 임한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크리스마스 쉼 증정식’을 가졌다.

특히, 올해 크리스마스 쉼은 월드컵의 도전과 전진의 역사를 세진, 온 국민이 사랑하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 선수가 직접 쉼의 모델로 참여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쉼 모금에 참여하고, 결핵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김관영 도지사, “쉼 모금운동에 도민 참여 부탁”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건강한 전북 만드는데 최선을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결핵 없는 자유로운 세상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결핵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많은 도민들이 크리스마스 쉼 모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도 보건당국은 “결핵은 아직도 발생률이 높다”며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결핵검진을 받아야 하며, 올바른

기침예절과 손씻기 실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는 이날 전북도의회 의정실에서 국주영은 의장에게 크리스마스 쉼을 증정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결핵 예방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의 역할에 감사드립니다”며 “전북도의회는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해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한 지부장은 “OECD 국가 중 한국은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일 정도로 결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결핵을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홍보해 주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은 대한결핵협회 주관으로 12월까지 총 30억원의 모금액을 목표로 결핵관리사업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전북지역 목표는 1억7000만 원이다.

크리스마스 쉼 모금사업을 통해 마련된 기금은 취약계층 결핵검진사업 65세이상 취약계층 노인결핵검진 및 결핵예방 대국민 홍보사업 등 결핵퇴치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김경수 기자

전주시의회, ‘의정 의회보’ 발간 추진

누구나 열람 가능한 2022 전주시의회 ‘의정 의회보’ 소식이 전해졌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022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의회보 발간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전주시의회보 제27호 발간 편집위원장은 김동현 운영위원장, 편집위원 최서영 윤혜정, 김세혁 최서연 등이다.

시의회는 매년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담은 의회보를 발간하며 이

를 주민센터와 시청, 구청, 전주시군 구의회, 유관 기관 등에 배포 하고 있다.

올해 의회보는 12대 전주시의회 의원 총담과 각종 의정활동 성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시정 질문, 5분 발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동현 편집위원장은 “의회의 1년 기록을 함축해 의회보에 담은 만큼 진솔하고도 명료하게 정리할 것”이라며 “전주시의회는 내년에도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자료: 질병관리청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